

옛날 '종로대학' 시절이 그리운 '매장박사'

14년째 서점 매장에서 일하는 이선우 계장

요즘들어 이선우씨(37, 종로서적 계장)가 맞는 아침은 좀 특별하다.

십사년째 종로서적으로 출근하다가 보름전부터 여의도 방면의 버스를 타고 그곳 쌍용타워 지하에 있는 서적부로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이씨가 하는 일은 쌍용타워 직원이나 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문하는 책이나 문구류를 종로서적으로부터 받아 신속하게 갖다 주는 일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씨의 일은 그동안 종로서적 매장에서 근무할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빌딩 안에 있는 잠재독자를 개발해야 하는 업무도 막중하게 짊어지고 있다.

신간정보에 관한 '도사급'

“얼마전 안양에서 신촌으로 이사왔어요. 출근시간을 단축해서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사람들에게 책을 읽게 하려면 매장에서 근무할 때와 달리 전략도 필요해요. 서적부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여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파악해서 구비하다보면 아침시간이 금쪽같죠.”

안양에서 태어나 23살에 종로서적에 입사한 이씨는 서점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계장 직급을 단 독보적인 인물. 사람이 한 직장에 십년이 넘게 근무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같은 세상에 3D직업으로 알려진 서점 매장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근무한 사람으로 이씨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씨는 출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신간을 가장 많이 읽고, 또 책의 성격을 파악, 제자리를 찾아서 깔아놓는 데는 '도사급'이기 때문.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떤 작가가 무얼 썼는지 알 수 없죠. 전부 읽지 못해도 저자나 제목, 출판사 정도는 환히 꿰고 있어야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이씨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는 것이 삶의 철학”이라며, 자신이 이 분야에만 종사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현재의 종로서적이 4층짜리 건물일 때 제가 들어왔어요. 우습게 들리겠지만 70대1의 경쟁을 뚫고요. 문고 파트에 처음 발령이 났는데 그때 선배들이 당부했던 말이 생각나요. 종로서적을 단순한 서점이 아닌 '종로대학'이라 여기고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박사' 소리를 듣게끔 일하라는 얘기였죠. 그후 문학파트를 10년 가까이 맡으면서 저는 국내외 문학

안양에서 태어나 23살에

종로서적에 입사한 이선우씨는

서점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계장 직급을 단 독보적인

인물이다. 한 직장에 십년 넘게

근무하기도 어려운데 3D 직업으로

알려진 서점매장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근무한 사람은 드물다. 신간을 가장 많이

꿰뚫고 있는 '도사급'이라

출판영업자들 사이에도 인기가 많다.

모두를 망라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도서목록을 외우고, 또 신간이 나올 때마다 추려서 읽고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컴퓨터로 도서검색을 할 수 없던 시절에 저자명이며 제목, 내용, 출판사를 적은 도서목록을 가지고 안양에서 종로까지 오는 전철 안에서 달달 외우기도 했다는 이씨. 이제는 손님이 찾는 책이 몇번째 줄 몇째칸에 꽂혀 있는지도 환히 꿰 정도이다. “문학분야에서 외국 소설은 꾸준한 편이고, 국내저작으로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쓴 에세이와 인간관계를 다룬 책이 잘 팔린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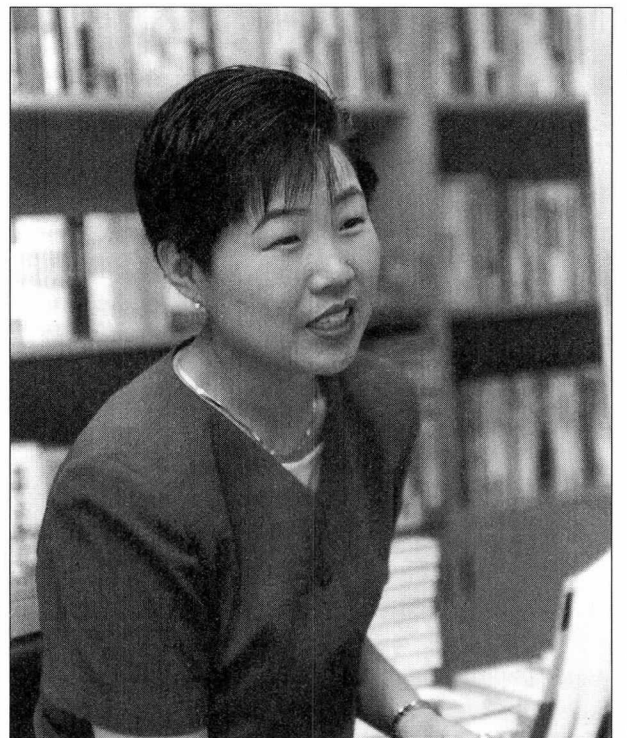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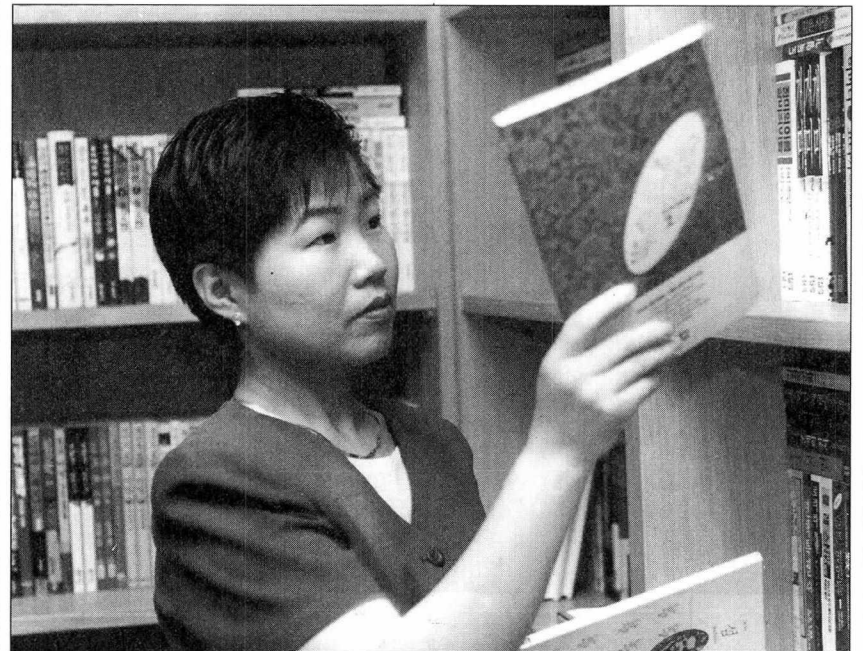
'자부심' 하나로 약조건 견디

그동안 후배도 많이 생겼지만 매일 서서 일하는 그들을 볼 때면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니라고 한다.

“제가 수당 합쳐서 13만원 받고 다닐 때는 그래도 책 읽는 재미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견뎌요. 그렇지만 임금 박하고, 시간 없고, 휴일 없는 건 아직도 여전하죠. 한창 때인 후배들이 주말도 있고 사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깝죠.”

이씨는 이런 약조건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라고 한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독자를 만날 수 없다는 자부심을 후배들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출판 종사자나 독자들도 매장 직원들의 고충이나 중요성을 인식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무심코 깔아놓은 책이 '사회학'이 될 수도



쌍용타워 지하서적부에서 인기있게 책을 정리하는 이선우계장의 손길이 바쁘다(위) 이계장은 “좋은 신간이 나왔는데 읽어 보시겠어요?” 하며 애교스럽게 한권 더 주문 받는 수원을 발휘한다.(아래)

있다면 비약이 너무 심한가요? 그렇지만 책 한권을 제자리에 꽂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더더구나 손님한테 권하는 책은 양서라고 판단되는 것을 권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책을 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씨는 종로서적에서 2년간 주임을 거쳐 여성으로선 처음 계장을 달았기에 “직원에게도 승진 기회를 주는 것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한다. 여건만

되면 정년퇴직도 바라볼 참이라는 그의 각오가 신선하다. ‘매너리즘 타파’를 위해 쌍용타워 서적부로 왔다는 이씨의 활동이 자못 기대된다.

요즘 이씨의 즐거움은 주말 등산이다. 그 때문인지, 추진력있고 의욕적이면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수줍게 웃는다.

— 배은희 기자